

# 프랑스어 언어요소간 일치와 학습자 오류

김미연  
(압구정고등학교)

Kim, Miyeon. (2018). Interlingual correspondence. The learner errors in French learn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3, 87-103.

L'apprentissage des langues étrangères s'accompagne inévitablement d'erreurs. Compte tenu du fait qu'il faut beaucoup de temps à un enfant pour parler couramment sa langue maternelle, il est évident que la production linguistique à cet âge n'est pas une forme parfaite sans erreurs. On peut voir aussi que dans la production d'une langue étrangère avec un temps d'acquisition court, les erreurs sont inévitables, plus fréquentes, et interfèrent occasionnellement avec la communication.

Les erreurs des apprenants sont classées selon la langue maternelle, la stratégie d'apprentissage, l'environnement socioculturel, etc. Dans cette étude, on s'intéresse tout d'abord à l'influence du coréen et de l'anglais dans le processus d'apprentissage chez les apprenants de français coréens, enfin, on porte attention à l'influence des règles du français que les apprenants ont déjà apprises.

L'«interférence», qui est revendiquée dans la théorie de l'analyse contrastive, apparaît principalement au début de l'apprentissage des langues étrangères, elle est donc très utile pour comprendre la langue des apprenants tout débutants. Cependant, puisque la théorie de l'analyse contrastive ne peut à elle seule rendre compte de toutes les erreurs de l'apprenant, nous avons appliqué la théorie intralinguistique de l'analyse des erreurs, qui est apparue après la théorie de l'analyse contrastive. Bien que l'étude des erreurs dans la cause de l'interférence ait été réalisée de diverses manières et qu'elle ait accumulé beaucoup de résultats, le type d'erreur est aussi varié que la production de la langue du locuteur. L'analyse des erreurs est toujours intéressante.

Enfin, bien que les erreurs des apprenants aient été plus susceptibles d'être interférées en coréen ou en anglais, il a été constaté qu'il y avait plus d'erreurs à cause des règles de la langue cible qu'ils connaissaient déjà. Il est vrai que les grandes différences de structure entre le français et le coréen rendent l'apprentissage difficile, mais les stratégies réelles des apprenants pour la production de la langue montrent qu'elles sont des références aux règles dans la langue cible plutôt que dans la langue maternelle.

**Key Words:** interlingual correspondence, learner errors, L2 learning

## 1. 서론

외국어 학습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동반한다. 어린 아이가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게 되더라도 그 때의 언어생성이 오류가 없는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국어에 비해 언어재료들이 축적될 시간과 습득시간이 현저히 짧은 외국어의 생성에서 오류는 필연적이며 더 빈번하고 때로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오류는, 학습정도는 물론 학습자의 모국어, 학습전략, 사회 문화적 환경,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첫째, 한국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언어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나 영어의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 언어의 간섭(interférence)에 의한 오류를 밝히는 한편, 둘째 언어 내 전이 즉 먼저 학습한 프랑스어 규칙을 과적용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오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조분석 이론에서 주장했던 ‘언어 간 간섭’은 주로 외국어 학습 초기에 나타나므로 초급 학습자의 언어생성 방식을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조분석 이론만으로는 학습자의 모든 오류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대조분석 이론 이후 대두되었던 오류분석의 ‘언어 내 전이’ 이론도 적용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간섭이나 전이 영향 원인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당부분 그 결과가 축적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류형태는 발화자의 언어생성만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먼저 습득하거나 학습한 언어 영향 원인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흥미롭다. 연구의 범위는 무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목표어인 프랑스어의 일치현상에 나타나는 오류분석을 통하여 초급학습자의 오류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분석방법

대조분석 이론은 학습자의 오류를 모국어와 목표어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학습자 오류자료를 연구하기보다 학습자 오류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데 초점을 두어 이후 오류연구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다양한 오류들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초급 학습자들의 진술이나 그들이 생성한 문장을 보면 대조분석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는 학습이 쉽고 모국어에 아예 없거나 상이한 언어요소들은 학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조분석 이후 등장한 오류분석 이론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모국어 규칙이나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언어의 규칙에 의존하는 것 혹은 먼저 습득한 목표어의 규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하나의 학습전략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불완전한 언어형태를 과도기적인 중간언어로 규정한 바 있고 이는 오류연구의 보다 합리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초기 대조분석 이론과 같이 모든 오류를 예측하여 학습과정을 미리 결정하려고 했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모국어 규칙의 차용이나 먼저 습득한 목표어 내 규칙의 과적용이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며 학습자 스스로가 이를 조절하며 목표어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학습자들의 다양한 오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우리의 교수·학습 과정은 더욱 풍부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전공필수과목인 프랑스어 기초문법 수업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를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은 프랑스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용자를 비롯해 외고를 졸업한 독립 사용자까지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학습자들의 3월 당시의 현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데 학습자 수준은 학생 스스로가 체크한 것이며 전체 24명 가운데 여학생이 22명, 남학생이 2명이다. CECR<sup>1</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 참조범주를 기준으로, 프랑스어 초급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도입단계 12명, 기초단계 5명, 독립시작 단계 4명, 독립단계 3명으로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크다. 초급문법 수업이니만큼 숙달된 사용자는 한명도 없었다.

<표1>

학습자 수준(Niveau du français des apprenants)

A 초보 사용자 Utilisateur élémentaire		B 독립 사용자 Utilisateur indépendant		C 숙달된 사용자 Utilisateur expérimenté	
A1 도입단계 Introductif ou découverte	A2 기초단계 Intermédiaire ou de suivre	B1 독립시작단계 Niveau seuil	B2 독립단계 Avancé ou indépendant	C1 자립단계 Autonome	C2 숙련단계 Maîtrise
12명	5명	4명	3명	.	.

사용된 교재는 ‘Grammaire pratique en français’<sup>2</sup>로 학습이 전부 끝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학습과정에서 관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 문장생성에 필요한 다양한 문법요소와 표현을 접했고 교양 강좌에서 ‘기초 프랑스어’를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학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각각 15개와 20개의 단답형 문항, 프랑스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요소를 3가지씩, 오류의 예를 들어 서술하는, 각 1개의 서술형 문항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된 문장은

1 언어 교수·학습·평가를 위한 유럽공동 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유럽 평의회를 중심으로 1991년부터 40여개 국가의 외국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한 언어 교수·학습·평가를 위한 공통 참조기준으로 2001년 발간되었다.

2 Y. Delatour 외. Hachette, 2008.

단답형 답에서 발견된 51개의 오류와 학습자들 스스로가 서술한 오류에 144개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오류 결과<sup>4</sup>중 형태·통사적 오류, 그 가운데서도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sup>5</sup>, 언어요소간 일치(Accord linguistique)에 관한 오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은 학습자 진술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항목별 중복내용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렇다면 먼저 프랑스어의 일치 현상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체 학생 답지에서 나타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언어요소간 일치와 학습자 오류

언어요소간 일치는 프랑스어 규칙의 대표적 현상이다. 프랑스어에서는 문장(phrase)이 구성되는 순간 하나 이상의 언어요소간 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언어생성 즉 발화의 기본단위는 문장이고 문장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어휘들은 단지 상호간의 순서, 즉 어순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의 변화 및 굴절을 통하여 올바르게 기능한다. 프랑스어에서 오류가 없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 어휘들이 인칭과 성, 수에서 변화하고 서로 일치하여 일치된 요소들이 동질화된 문법범주로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일치현상은 한국어에는 전혀 없고 영어의 경우 3인칭 현재시제와 같은 일부 주어와 술어동사 간의 인칭과 수 일치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언어지식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 3.1. 주어와 동사

일치의 예로는 우선,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나 대명사와 동사 사이의 일치가 있다. 흔히 동사변화라고 표현되는 동사의 일치는 주어의 인칭(personne)과 수(nombre)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être나 avoir 등과 같은 불규칙 동사를 제외하면 1군과 2군 동사는 각각의 규칙을 가지며 각 범주에 포함되는

3 항목별 어려움을 알기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들은 하나로 취급하였다. 빈도는 아래 <표2>에 제시하였다.

4 오류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크게 원인에 따른 분류, 결과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뉜다. 원인에 따른 분류는 간섭오류, 언어내적 오류, 발달 오류로 세분화되며 결과에 따른 분류는 언어학적 분류기준에 의해 철자-어휘 오류, 음성 오류, 의미적 오류, 형태·통사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세분화된다(Selinker, 1974, James, 1998, 2011. 김미연 참조).

5 <표2. 결과에 따른 오류 분석>

언어요소간 일치	법	기타 형태·통사적 오류	음소표기오류	합계
47	10	23	7	87

동사들은 일정한 어미변화를 하게 되어 aimer가 aime, aimes, aime, aimons, aimez, aiment와 같이 굴절되는 식인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규칙의 숙달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① Pourquoi tu reste chez toi ? (restes)

이는 학습자가 1군 동사의 어미변화를 잘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숙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장생성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다. reste와 restes는 구어에서 모두 [Rɛst]로 동등하여 구별되지 않는 것도 정확한 학습을 방해하는 한 요소다. 한편 동사의 일치에서는 3군 불규칙 동사의 경우에서 오류가 많다.

② Tu ne sorts pas, pourquoi ? (sors)

이러한 동사변화 형태를 만든 학습자는 sortir 동사의 어간이 단수에서는 sor-, 복수에서는 sort-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몰라 단수에서도 sort-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대로 두고 어미를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규칙을 염두에 두기는 하였지만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한 프랑스어 규칙내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③ Direz/Disez-lui bonjour de ma part. (Dites)

④ Vous faisez du foot. (faites)

이는 불규칙 동사 dire와 faire의 어미변화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ez이 일반적으로 2인칭 복수형 vous에 일치하는 어미라는 프랑스어 내 동사변화 규칙을 과적용한데 따른 오류다. 한편 3군 동사 aller 역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이 매우 생소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학습자 진술에 의하면 형태만으로는 동사원형과 vais, vas, va, vont을 전혀 연관 지을 수 없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 다음은, 명령문에서 동사어미변화를 잘 숙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류들이다.

⑤ Ne joues pas de foot ce soir. (joue)

⑥ Faite-moi du gâteau. (Faites)

⑦ Attend-moi ! (Attends)

⑧ Va-y ! (Vas)

⑤는 명령문에서 s를 빼는 규칙을 몰라 일어난 오류인데 반해 ⑥, ⑦은 Tu에 대한 명령일 때 1군 동사 -es나 aller의 vas에서 s를 빼는 프랑스어 내 규칙을

다른 그룹의 동사변화에도 과적용한 예다. 또 ⑧은 va가 중성대명사 y가 올 때 모음충들을 피하기 위해 다시 vas형태가 되는 것을 몰라 일으킨 오류다.

- ⑨ Nous mangons du riz. (mangeons)
- ⑩ Nous nagons à la mer. (nageons)
- ⑪ Comment s'appelle-il ? (s'appelle-t-il)

한편 ⑨-⑪은 ⑧과 마찬가지로 발음상의 이유로 동사에서 철자변화가 있거나 자음 t를 삽입하는 것을 모르는데 따르는 오류다. 이러한 오류들은 단순히 규칙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미 알고 있는 규칙을 과적용한 언어내 간접오류라고 할 수 있다. 주어와 동사 간 일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쉽게 교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단순한 오류인데 반해 다음은 일치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다른 종류의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⑫ La plupart des chambres de cet hôtel donne sur la mer. (donnent)

이를 보면 주어부에서의 지배사(dominant)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장내부에서 la plupart와 chambres 중 어느 요소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주어부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둘 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문법적으로는 la plupart가 주어부의 지배사로 동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미적으로는 '대부분의 방들'로 해석되어 복수인 chambres가 주어인 것이 분명하여 판단이 어렵다. 많은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la plupart를 지배사로 인식하고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오류경향을 보였다. 이 문장에서는 la plupart de가 chambres의 피지배사로서 chambres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사에 대한 지배사 역시 chambres가 된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형태적 일치가 아닌 의미적 일치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일치 형태는 문법적 일치라기보다는 주어와 동사간의 의미적 일치<sup>6</sup>라는 입장이다. 교수·학습과정에서 이 두 관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학생들이 일치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복합과거 시제의 활용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복합과거 시제는 영어의 현재완료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는 영어의 과거시제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6 지금까지 우리는 불문법을 통해 형태상의 일치만을 배워왔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의미상의 일치'와 '무일치'는 예외 또는 특수한 경우로 간주함으로써 일치분야의 주변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치체계를 설명하려면 이 두 유형의 일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복성규, 1999).

학습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 ‘Je suis né le 6 août 1971’와 같은 문장에서 né가 주어의 성수에 따라 née, nés, nées 등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학습하지만 연습이 부족한 학습자 문장생성에서는 아직 이러한 과거분사의 굴절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⑬ Ils sont venu nous voir(venus). ⑭ Elles sont parti(parties). 와 같은 문장이 흔히 관찰되는데 규칙 혼동으로 아래와 같이 조동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⑮ J’ai allée au cinéma. (Je suis)

⑯ J’ai arrivée à la poste. (Je suis)

⑮과 ⑯는 복합과거 시제에서 조동사로 être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잘못라 avoir를 적용한 경우로 프랑스어 내 규칙을 과적용한 오류이다. 사용에서 대치가 발생하였다. 다른 일치의 오류도 발견되는 데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⑰ Je suis rentré mon vélo dans le garage. (ai)

⑱ Elle est sortie de la maison à midi et elle a sortie la voiture du garage. (sorti)

⑰과 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와의 성수일치는 monter, descendre, entrer, sortir 등과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활용되는 동사인 경우에서 더욱 빈번히 오류로 나타난다. 움직임,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조동사는 être이지만 이들 동사 역시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가 되었을 때는 avoir를 조동사로 취해야 하므로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학습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Je suis passée devant la poste./J’ai passé de bonnes vacances à Paris.와 같이 passer가 각각 자동사와 타동사로 사용되었을 때의 예를 정확하게 드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어떤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복합과거의 성수일치는 조동사에 따라 달라지고 그 속에서도 예외가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다. 보통 avoir + pp는 불일치, être + pp는 주어와 pp를 성수일치 시켜야 하는데 être + pp도 보통은 일치시키지만 demander à qn처럼 간접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대명동사로 활용되면 Elle se sont demandé와 같이 성수일치를 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대명동사의 복합과거 시제활용에서 성수일치를 더욱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와 등가적 의미를 가지는 직접목적보어나 간접목적보어 대명사 즉 재귀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대명동사는 개념자체가 한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낯설다.

⑲ Je suis promenée mon chien (ai promené)

㉔ Je me suis promenée mon chien. (ai promené)

이러한 문장을 생성한 학습자는 promener와 se promener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동사로서 promener를 충분히 다룬 적이 없는데도 교재구성상 대명동사로서 se promener를 먼저 학습하기 때문에 프랑스어 내 규칙의 과적용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대명동사의 사용은 다른 일치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습자들의 실제 문장생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㉕ Il faut vous lever. (se)

㉖ Vous pouvez se lever. (vous)

㉕은 비인칭 구문에서 주어와 재귀대명사의 일치대신 대화 상대자이며 lever라는 실제 행동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vous가 사용되고 있다. 반대로 ㉖에서는 주어와 재귀대명사를 일치시키는 대신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동사가 온다는 규칙을 재귀대명사 사용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한국어에 전혀 없는 문법규칙을 잘 몰라 일으킨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는 지배사와 피지배사를 의미에 따라 결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프랑스어 내 문법 규칙을 과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원인은 서로 다르다. 한편 Ils se marient./Ils sont mariés. 그리고 Il s'assoit./Il est assis.와 같은 문장들도 초급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문장의 짝은 의미상의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행위의 진행이나 미래를, 후자는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상태임을 주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3.2. 관사와 명사

다음으로 관사와 명사의 일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프랑스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관사 체계가 존재하는데 교재의 순서나 구성과 관계없이 프랑스어 구조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관사와 명사의 일치 부분이라고 생각된다.<sup>7</sup>

관사는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등과 함께 명사 앞에 사용되는 한정사의 일종으로 명사와 성수일치 해야 하지만 한국어에는 이러한 일치 현상이 없다. 프랑스어에서는 관사,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등 소위 한정사라 불리는 명사 관련 기능요소들이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관련 기능요소라고

<sup>7</sup> 프랑스어 기초문법 수업에서 사용한 교재 *Grammaire pratique en français*에서는 동사부터 나오지만 실제 예문에는 이미 관사와 명사가 등장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학습내용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학습자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교재의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면이 있다.



할 수 있는 복수표지 ‘들’과 ‘에게’ ‘부터’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격 표지 ‘가/를/의’와 같은 접사들이 명사에 후치된다(홍용철, 2009). 이러한 면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관사의 사용에서 한국어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작단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사의 누락이다.

㉓ Il y a joli voiture noir. (une jolie voiture noire)

㉔ Cela n'a pas ø sens. (de)

한국어에 관사가 없고 선행학습한 영어의 경우도 명사 앞에 항상 관사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언어간 영향에 의한 오류이다.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의 성일치도 되어있지 않다. 관사의 누락과 같은 맥락에서 부정의 de 누락도 보인다.

다음으로는, 관사의 사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올바른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대치의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㉕ C'est un entreprise coréen. (une)

㉖ C'est un film que j'ai vu hier soir avec mes amis. (le)

㉕는 단순히 명사의 성을 잘 몰라 일어난 대치오류이고 ㉖은 명사의 성은 알지만 관사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다. 이 문장을 생성한 학습자는 ‘여러 편의 영화를 보았고 그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구체화된 특정 영화이므로 le film가 맞으나 한국어에는 관사개념이 없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명사의 성을 잘 모르거나 어떤 관사를 사용해야 할지 잘 몰라 부정관사와 정관사 사이에서 대치가 일어난다. 프랑스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첫 번째 의문은 주로 왜 사물에 성이 정해져 있느냐는 것이다. 여성명사로 mère, père와 같이 존재의 자연성을 따르는 것이 있고 école, banane, entreprise처럼 e로 끝나는 명사는 대체로 여성이다, -al, -age, -eau로 끝나는 명사는 대체로 남성이다 라는 몇 가지 사실 이외에 학습자들이 준거로 할 만한 성 구별의 규칙은 없고 이나마 arbre, livre 등은 e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며 eau는 -eau로 끝나는 다른 명사와 달리 여성이라서 학습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다.

한편, 다른 유형의 대치도 있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㉗ Je préfère de l'eau au café. (l'eau)

㉘ Il y a beaucoup des pommes. (de)

㉗은 물질명사 앞에는 부분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프랑스어 내 규칙을 과적용하고 있으며 ㉘은 beaucoup de가 부정관사를 대신하여 한정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de 대신 부정관사 복수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단순히 ‘pommes(사과들)가 복수형으로 쓰여 des pommes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관사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축약형태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㉙ Pourquoi tu ne vas pas à la parc ? (au)

한국어에서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관사와 관련하여 많은 오류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가능하며 또 많은 오류 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 교수자들은 교수·학습 과정을 통하여 관사가 누락되어 있는 문장생성을 많이 보아왔다. 학습자들은 관사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프랑스어의 명사에 성의 구별이 있어서 학습이 어렵다’라든가 ‘아직도 여성과 남성명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어떤 학습자는 자신이 생성한 ㉚ Devant le maison, il y a un voiture. (la, une)에서 관사가 잘못 사용된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을 만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 학습자들은 명사의 성변화를 인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므로 올바르게 사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관사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들은, 프랑스어의 명사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며 관사나 지시형용사, 소유형용사와 같은 한정사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의미 있는 하나의 언어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프랑스어 명사의 현동화(actualisation) 방식에 기인하는데 학습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은 관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관사누락 단계에서 관사는 사용하되 오류가 있는 문장으로 진행되었다가 점차 오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학습자들은 C'est와 Il/Elle est구문에서 관사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㉛ Il est un photographe. (ø)

㉛은 신분, 직업, 국적을 나타내는 Il(Elle) est 구문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사 앞에서 관사를 생략해야 하는데 이는 규칙을 알고는 있더라도 실제 문장생성에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Il est un professeur très sympa.’와 같은 사용 예로 인해 혼동이 생긴 탓이다. 이러한 예는 명사 앞에는 언제나 관사나 이에 준하는 한정사가 있어야 한다는 프랑스어 내 규칙을 과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어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의 문장 내 기능방법을 잘 몰라 일으키는 한국어 원인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신분, 직업, 국적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C'est를 사용할지, Il(Elle) est를 사용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교재에 C'est는 사물이나 사람의 신원확인(identification)이나 소개(présentation)를 할 때, 명사 앞에 한정사(관사, 소유형용사)가 있을 때 사용하며 Il(Elle) est는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description) 할 때, 형용사나 국적, 직업을 나타내는 무관사 명사가 따라올 때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신원확인'과 '묘사'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문장이 발견되었다.

㉒ Il est le copain d'Antoine. (C'est)

㉓ Elle est journaliste connue. (C'est une)

이는 관사의 기능방식을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신분, 직업, 국적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C'est / Il(Elle) est의 한국어 번역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어에 없는 요소를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문에 따른 관사의 사용과 연관된 문제로서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학습요소로 판단되는데 교재의 서술방식도 한국 학습자들에게는 명료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다.<sup>8</sup>

한편 아래 ㉔는 관사 및 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잘못된 예이다.

㉔ Les glaces, ce sont délicieux. (c'est)

문두에 제시되고 있는 복수형 les glaces로 인하여 학습자들 일부가 이와 같은 문장을 생성하였다. 표면적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이 문장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아이스크림은 지금 진열장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라는 개념, 아이스크림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수형으로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오류는 c'est와 ce sont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 les glaces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는데 관련 연구에서 G. Jeanmaire(2006)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il existe encore une manque de pluriel en coréen. Cependant, dans des énoncés du type \* J'aime les pommes(\*사과들이→사과가 좋아요), Son

8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재에는 C'est가 신원확인(identification)이나 소개(présentation)에 사용되고 Il(Elle) est는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description)한다고 서술되어있으나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명료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emploi ne serait pas naturel en coréen. N'ayant pas systématiquement recours à une marque de pluriel dans leur langue maternelle, il n'est pas étonnant d'entendre ce genre d'énoncé.

한국어에 수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J'aime les pommes'는 '사과가 좋아요'가 아니라 '사과들이 좋아요'라고 해석되곤 하는데 이는 예시 문장이 '과일로서 사과가 좋다'가 아니라 '특정 사과들이 좋다'라는 말로 달리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과가 좋아요'라는 프랑스어 문장을 만들 때 학습자들은 'J'aime la pomme'라는 문장을 생성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있고 실제 그런 문장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김미연, 2011). 특히 부분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물질명사 앞에서 단수형과 복수형 사용에 혼란이 많이 발견되는데 J'aime du riz와 J'aime le riz처럼 관사 선택에서의 오류도 있지만 그 보다는 riz와 같이 셀 수 없는 물질명사 jambon, muguet 등과 셀 수 있는 명사들 fruit, raisin, légume 앞에서 단, 복수 사용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학습요소라고 생각된다.

### 3.3. 명사와 형용사

언어요소간 일치는 지배사인 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피지배사, 형용사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프랑스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의 경우, 알고 있는 어휘가 거의 없어서 때로 단어가 형용사라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지배사인 형용사를 지배사인 명사에 성수일치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용하기란 더욱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㉔ Ma petit fille aura 6 ans dans 4 mois. (petite)

이와 같은 문장을 생성한 학습자는 프랑스어의 형용사 사용이 영어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의 어린 딸'을 구성하면서 영어의 'little'을 곧바로 프랑스어 'petit'로 번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류는 형용사 사용에서 준거가 될 수 있는 영어에는 형용사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오류는 영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원인으로 특히 소유 형용사의 사용에서 오류가 가장 빈번했다.

㉕ 그의 자동차 son voiture (sa)

㉖ 그녀의 펜 sa stylo (son)

㉗ 그(녀)의 아이들 son(sa) enfants (ses)

한국어에 이와 같은 소유 형용사의 활용이 없는데다 이미 알고 있는 영어의 경우는 소유형용사의 지배사가 소유주이므로 그의 자동차 his car, 그녀의 자동차 her car와 같이 활용되는데 반해 프랑스어의 경우는 소유의 대상이 소유형용사의 형태를 결정하므로 영어에 준한 결과 생성된 오류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㉓ C'est ma livre. (mon), ㉔ Elle porte sa sac. (son)', ㉕ Tu as mon stylos. (mes)와 같은 문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형용사와 지배사인 명사 간의 어순도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어의 경우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와야 하는 경우와 명사 뒤에 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의미에 따라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㉖ un sac noir/un noir sac/une sac noire/une noire sac 사이에서 선택의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규칙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에도 존재하는 않는 것이어서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 3.4. 주어와 속사

프랑스어에서 일치의 또 다른 경우는 Le ciel est bleu./La mer est bleu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와 형용사나 명사인 속사 간의 일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오류 예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교재나 시험문제에 연관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 학습자가 관련 문장을 생성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학습자들의 오류가 전혀 없고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 3.5. 선행하는 직접목적보어와 과거분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 내 언어요소간 일치는 주어와 동사, 관사와 명사, 명사와 형용사, 주어와 속사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치현상에서 피지배사인 동사의 인칭과 수, 형용사의 성과 수를 결정하는 것은 지배사인 명사나 대명사이다. 그런데 프랑스어에는 선행하는 직접목적 보어와 과거분사 사이에도 일치가 존재한다. 다음은 이와 같은 규칙을 잘 몰라 분사의 형태에 발생한 오류이다.

㉗ Ces livres, je les ai déjà lit. (lus)

lire 동사와 유사한 dire동사의 pp가 dit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유추한 프랑스어 내 영향오류로 형태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 ㉔ On utilise encore la voiture que ses parents lui ont donné/donnés il y a 5 ans. (donnée)

의 경우, donné의 사용은 선행하는 직접목적보어와 과거분사간의 일치를 전혀 모르는 것에 기인하며 donnés는 선행요소 무엇인가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라 ses parents에 일치시킴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 규칙은 지배사와 피지배사 간의 주종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현대 프랑스어 문법의 기형적 사실로 인식되기도 한다. 복성규(1999)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장에서 동사가 필요에 따라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지배사이므로 동사의 변형으로서 지배사인 과거분사가 피지배사인 직접목적보어에 성과 수를 일치한다는 것이 문법논리에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donner la voiture라는 동사구에서 지배사는 동사인 donner이므로 일치가 불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분사를 ‘la voiture (que ses parents lui ont) donnée’ 즉 ‘(부모가 그에게) 준 자동차’와 같이 전환된 형용사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일치가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기이한 현상만은 아니다.

### 3.6.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에 관한 논의에서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언급한 시제일치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초급문법 수업에서는 주로 단문을 다루지만 que가 이끄는 목적절과 Si 가정법 구문도 나온다.

- ㉕ Je lui ai dit que je suis belle. (j'étais)

학습자 문장생성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que + 직설법 구문에서 주절에 과거시제가 사용되면 종속절에는 반과거나 조건법(과거미래)이 와야 하는데 직설법 현재시제를 사용하는데 따른 오류이다. 학습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시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술에 따르면 이 오류는 영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 ‘내가 예쁘다고 그에게 말했어’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오류를 깨닫지 못했다면 한국어 표현방식에 따른 오류로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도 발견되었다.

- ㉖ Si j'avais eu beaucoup d'argent, j'achèterais une grande maison.(j'aurais acheté)

가정법 문장에서 Si 다음에 대과거가 와서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경우, 주절에서 조건법 과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몰라 조건법 현재를 사용한 경우다.

⑰ Elle m'a dit qu'elle va allait au restaurant. (allait aller)

은 주절이 복합과거이고 종속절이 과거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학습자는 종속절의 첫 번째 va는 단순히 조동사일 뿐이므로 인칭과 관련하여 일치시키고 본동사를 과거미래인 조건법으로 변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프랑스어 내 규칙을 잘못 적용한 예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어의 고유한 특징인 문장 내 언어요소간의 일치를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초급단계의 프랑스어 학습에서는 학습내용의 대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특히, 복합과거에서 주어와 과거분사의 성수일치, 소유형용사나 품질형용사와 명사의 성수일치, 대명동사 사용 시의 성수일치, 명사의 성수구분 및 관사와의 성수일치 등, 일치의 문제가 오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문장요소간의 언어적 일치는 한국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학습자들이 상당히 숙달하고 있는 영어에서도 부분적인 흔적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많은 오류를 유발하게 만든다. 따라서 초기 학습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한국어와 프랑스어간의 극명한 구조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 <표3>을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표3>

원인에 따른 오류 분석

한국어의 간섭	영어의 간섭	목표언어내 전이	학습환경	합계
17	7	21	2	47

표를 보면 학습자 오류원인으로는 한국어의 간섭이 19건, 영어의 간섭이 7건, 목표어내 전이가 21건으로,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학습자의 오류에는 한국어나 영어의 간섭원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목표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큰 구조차이가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2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이 언어생성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모국어보다는 목표어 내 규칙의 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간섭은 관사 및 복합과거에서, 영어의 간섭은 소유형용사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동사의 활용에서는 프랑스어내 규칙의 과적용이 다수 관찰된다. 한편, 학습환경에 의한 오류는 타동사로서 promener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명동사 se

promener가 도입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유발되는 오류는 교재나 교수과정의 문제로 오류의 원인이 주로 학습자 외부환경에 있다.<sup>9</sup>

#### 4. 결론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오류의 형태는 매우 많고 원인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오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오류들 역시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수일치에 관련된 오류는, 근본적으로는 한국어에 그러한 규칙이 없어 한국인 학습자에게 어렵고 생소하여 발생하지만, 실제 오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프랑스어 규칙을 차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오류원인의 층위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오류를 대하는 교수자나 연구자의 올바른 이해와 교수·학습과정에서의 허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규칙이나 먼저 학습한 영어의 규칙을 차용함으로써 보여주게 되는 언어형태는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와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모국어에 관사의 성수변화가 있는 스페인어나 이탈리아 사용자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과는 다른 오류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프랑스어 규칙을 과적용하는 방식 또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중간언어 양상에 대한 비교도 가능할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와 중간언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언어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며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9 접속법은 그 자체로도 난이도가 높지만 학습자들은 교재의 기술방식이 명료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오류의 원인이 하나 이상일 경우, 학습자 진술에 따라 좀 더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

**참고문헌**

- 김미연(2011), “한국일반계 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프랑스어와 일본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 복성규(1999), “불어의 범주일치(Accord)의 교수법에 대하여”
- 홍용철(2009),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명사구”
- Conseil de l'Europe(2001),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 Corder, S.P.(1980), *Que signifient les erreurs des apprenants ?*
- Corder, S.P.(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 Cuq, J.P. (1996), *Une introduction à la didactique de la grammaire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Delatour. Y (2008), *Grammaire pratique en français*
- Jeanmaire, G.(2006), *Analyse des fautes typiques des apprenants coréanophones lors de l'apprentissage du FLE.*

김미연  
 소 속: 압구정고등학교  
 직 위: 프랑스어 교사  
 주 소: (0600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전 화: (02) 549-0213  
 이메일: nuance9@hanmail.net

Received on 2018.11.05.  
 Reviewed on 2018.12.0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018.12.27.  
 Accepted on 2018.12.28.